

## 01. 전진 이야기

그는 밤의 해변에서 모닥불을 피우기로 결심했다.

결에 아무도 오지 않아 그는 혼자였다. ‘모닥불은 원래 여럿이서 피워야 제 맛인데’라는 생각도 잠시, 그는 곧 타오르는 불에 매료되었다. 질 좋은 뿔감을 구하고 싶었지만 몇 개는 물에 젖어 눅눅했다. 서로에 기댄 나무 막대들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어설피 보였다. 이제 파이어스틱을 꺼낼 차례다. 처음에 잘 점화되지 않던 불꽃은 마침내 수분의 방해를 이기고 솟아오른다. 그는 이런 풍경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여전히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그곳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은 하늘과 바다의 경계마저 흐려놓았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곧 속에 있는 무언가를 깨워 낼 것만 같은, 낮지만 분명한 울음이었다. 울음은 원래 그런 것이니까. 도달하기도 전에 사라져 버린 것들을 생각하며 그는 저 안에 도사리고 있을 절대적인 어둠을 궁금해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그는 두려웠다. 먼바다를 향해 하는 사람들에게나 친숙할 법한 공포가 그에게 태생적으로 심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더 깊은 곳으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고, 덕분에 그는 줄곧 지금처럼 육지와 바다의 경계에서 망설이고는 했다.

그는 탐험가로서의 생애에서 마주친 수많은 칼데라의 모습을 회상했다.

수년 전 방문했던 인도네시아의 어떤 화산은 아직도 활동 중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그 위에서 있는 동안 폭발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지금도 역시 어딘가에서 최후를 맞이해야 한다면 내가 딛고 선 이곳은 아니라고, 그는 다시 생각했다. 자꾸만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스스로가 원망스러웠다. 상상 속에서 그는 이미 물살을 헤치고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는 그저 좌표를 잃고 서성이는 한 이방인에 불과했다. 바다는 한발도 물러나지 않는다. 이내 아득해지고 마는 건 그 자신이었다.

모닥불이 곧 사그라들 것처럼 희미한 신음을 내뿜었다.

타닥...타다닥...탁... 그때 또 다른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가고자 했지만 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마치 시야에 오류가 난 것 같았다. 순간 무엇인가 허공에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것은 꼬리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기억해 내고 싶었지만, 그에게 남겨진 사실은 무언가의 사라짐을 보았다는 것뿐이었다. 여러 갈래로 흩어지며 길을 내고, 오직 몸짓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 인상조차 떠올리기 어려웠지만 그는 계속 떠올리기로 했다.

그는 고개를 조금 떨구고는 수평선이 있어야 하는 자리를 바라보았다.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들이

보였다. 그는 몸을 움직여 나아가기 시작했다.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지 못했으나 간신히 마주본 곳을 향해 자신의 가장 밝은 부분을 흘려보냈다.

가라앉아 있던 빛이 다시 운반되기 시작했다.

## 02. 건진 말

빛을 운반하는 몸들 비눗방울 유리잔 거울 윤슬 반쯤 녹은 얼음 해지고 난 후의 바다 위에서는 모든 것이 뒤엎기고는 한다 바다는 중심을 갖지 않는다 바다는 안팎을 구분하지 않는다 떠오르는 것과 가라앉는 것 버팀과 무너짐 반복과 정지 여러 겹의 바다 오래된 바다 지금의 바다가 있고 바다로 나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이들에 관한 무수한 소문들이 있다 무수한 진실이 있다 알 수 없는 저마다의 이유로 그들은 아직 향해 중일지도 모르며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새 제자리에 있기도 하다 이야기는 현재에 도달하지만 이미지는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한다 왕복할 뿐이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을 그리기 과거는 손끝에서 회복된다 적혀진 그 바다는 본 것이 나 다름없는 것 그러나 본 것은 아닌 것으로서<sup>1)</sup> 지도에 없지만 사라지지 않고 형태 색조 질감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대상에게 속해있으나 나에게 속해 있기도 하다 파도 위에 문장이 있다 종이 배를 띄워 불을 붙인다 일렁이는 이 바다를 지나 그 바다로 가시오 답장은 언제나 늦다 고개를 들면 배는 이미 저만치 앞서가 있다 불꽃은 미래의 바다를 닮았다

---

1) 김유림, 「그 바다」, 『탐구』 (도서출판 산치림, 2026), 59.

### 03. 쓰이고 지워지기, 떠오르고 가라앉기: 김보경의 회화에 관한 노트

세계는 완전하게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무한히 분절되어 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시야에서는 지속적인 결손이 일어난다. 눈의 깜빡임은 세계에 구멍을 내고, 공백이 된 자리에는 어둠이 들어선다. 그러니까 사실 세계는 자잘하게 끊기고, 유실되고, 다시금 이어 붙여진 장면들로 구성된 거대한 편집본인 셈이다.<sup>2)</sup>

혹자는 김보경의 회화가 이러한 메커니즘의 재현, 그러니까 본다는 감각과 실제로 본 것을 결합하는 총체적인 평면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재현만이 회화의 과제는 아니며, 총체성에 대한 실험이라고 하기에 작가의 회화는 완결된 이미지를 지향하지도 않는다. 이름 없는 대상들과 잘려 나간 풍경들이 합성된 화면은 이들이 제자리를 찾아 정착하는 곳이라기보다 계속해서 자리를 찾아 배회할 수 있는 공간처럼 느껴진다. 더는 곁에 존재하지 않게 된 것들, 흔적으로만 존재하게 된 것들, 낯익지만 흐릿하고 불분명한 것들. 이들을 되살리기 위해 어둠이 도입된다. 이때의 어둠은 앞서 언급한 메커니즘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 그 찰나의 어둠, 실제로 일어나지만, 인식과 기억에서 제외되고는 하는 바로 그 어둠이다.

한편, 어둠은 이미지가 등장하기 위한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배경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대상이 스스로 분기하고, 자신을 둘러싼 비밀을 쉽게 해소하지 않을 자유를 준다. 자유는 현실을 초과하고, 초과한 위치에서 허구가 자라난다. 문장 구조와 시간의 선형적 흐름에 의존하는 서사와 달리, 허구는 의미가 결여된 곳,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곳으로부터 출현한다. 따라서 어둠은 허구가 쓰이는 데 필요한 여백과도 같다. 허구를 향하는 김보경의 회화는 그려지는 동시에 쓰인다. 이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그릴지를 선택하고 배치하는 일과 관련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이는 기억을 어떻게 물질화할 것인가, 경험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매체적/형식적 응답에 가깝다.

목탄은 반복의 정도를 넘어서면 더 검게 칠해지지 않고, 픽사티브를 뿌리고 물칠을 하는 행위는 그것을 더 연약하게 만든다. 어둠을 덧칠하고 다시 불투명한 것으로 만드는 행위의 반복 속에서 작가는 같은 기억으로 수없이 되돌아가지만, 그때마다 다른 장면과 만난다. 거센 바람과 파도가 풍화작용을 일으키는 것처럼, 망각의 소용돌이는 기억의 중심을 서서히 마모시킨다. 이제 남은 것은 거의 닳아버린 테두리뿐이다. 그럼에도 그에게 허락된 유효한 일은 오로지 남아 있는 그 테두리를 어루만지는 것이다. 인용의 부스러기, 매체의 잔여는 결국 잠재적인 것들을 시사한다. 허구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이 틀을 뚫고 등장할 것이다.

해변을 거닐다가 떠밀려온 해류병을 우연히 발견한다고 상상해 보자. 의도하던 수신인에게 닿지 못했으니 이 편지는 일단 실패다. 그러나 뒤집어보면 그것은 온전히 점유되거나 귀속되지 않은 채로 세계에 관여하고 말을 건다. 한 통의 편지가 아니라 여러 갈래의 대화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이미 텍스트를 넘어선 존재다.

---

2) 현실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에 관한 본문의 기술은 폴 비릴리오의 『소멸의 미학』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김보경은 “단지 멈춰서 있는 하나의 밝은 빛”을 그리고 싶다고 했다.<sup>3)</sup> 굴절되고 반사되는 빛의 물리적 특성은 그의 바람과 어쩔 수 없이 모순된다. 그러나 김보경의 빛은 서술하는 빛이라는 점에서, 이미지를 직접 새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둠 한가운데 두고 나오는 데 필요한 빛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빛을 능가한다. 그것은 검푸른 바다 아래 잠든 별빛.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지 않고, 길을 잃고 계속 항해하게 했던 미지의 그 빛이다.

---

3) 2026년 7월 29일 작가와의 대화에서.